

# 교회 소식

## 예배

- 1. **월요일 새벽(위성)예배 시간변경**  
일시: 8월 4일 월요일부터  
기존: 오전 5시 -> 변경: 오전 5시 30분

## 선교회 / 교회학교 / 부서

- 1. **유아유치부, 초등부 여름성경학교**  
주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라!"  
일시: 8월 9일(토)~10일(주일) / 장소: 교회
- 2. **청년부 여름 국내선교**  
주제: "믿음을 따라 소망을 기다립니다."  
일시: 8월 15일(금)~17일(주일)  
장소: 순복음카페교회(강원도 원주)
- 3. **사랑부 여름 수련회**  
주제: "함께하는 하나님, 함께하는 친구"  
일시: 8월 16일(토)~17일(주일) / 장소: 양평체험마을, 교회
- 4. **매주일 권사중보기도회**  
일시: 오전 9시, 11시 / 권사회실

## 안내

- 1. **주일 교회 식당**  
매주일 2부, 3부 예배후에만 운영됩니다.
- 2. **초등부 예배실, 나눔쉼터 공사 완공**  
초등부 예배실(2층)과 나눔쉼터(5층)의 공사가 완공되었습니다.

## 모집

- 1. **헝시바 워십선교단 단원모집**  
모임시간: 매주일 오후 1시 30분 / 유아유치부실  
문의: 양하영 목사

## 후원 선교사 / 교회

- <후원 선교사> 베트남\_김건홍 선교사, 네팸\_김진만 선교사, 레바논\_김중현 선교사, 미얀마\_배수현 선교사
- <후원 교회> 위례하늘교회\_홍성필 목사

## 온/라/인/헌/금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을 위하여  
교회 헌금 계좌번호를 안내해드립니다.

국민은행 441501-01-491593

예금주 | 여의도순복음강동교회

# 예배와 교회 안내

## 주일예배

1부	오전 7시	대성전
2부	오전 9시	대성전
3부	오전 11시	대성전
4부(위성)	오후 1시	소성전
청년부	오후 1시	대성전

## 교회학교 주일예배

유아유치부	오전 11시	유아유치부 예배실
초등부	오전 11시	초등부 예배실
중고등부	오전 11시	중고등부 예배실
사랑부	오전 11시	사랑부 예배실

## 정기예배

새벽예배(월)	오전 5시 30분	대성전
새벽예배(화-금)	오전 5시	대성전
수요예배(위성)	오전 10시 10분	대성전
금요성령대망회	오후 8시 10분	대성전

## 유튜브 온라인 예배



<http://www.youtube.com/@yfgangdong>

◀QR코드를 카메라로 스캔하여 연결.

## 교/회/주/소

서울시 강동구 천중로 21길 11(구:천호동 300-1)  
Tel.02-474-2021 Fax.02-484-2021

## 하/남/기/도/처

경기도 하남시 하남대로 747 1층 123호

## 홈/페이지

<http://www.yfggangdong.com>

2025년 8월 10일

통 3권<제 32호>

# 주보

담임목사 변성우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백 배나 얻었고  
야훼께서 복을 주시므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창세기 26장 12-13절



주/일/예/배	*다같이	
경배와 찬양	다같이	
*말씀선포	사회자	시 46:1~3
*신앙고백	사도신경	
찬 송	다같이	찬송가 408장(통 465)
대표기도	1부	양하영 목사
	2부	김영진 장로
	3부	송원홍 장로
성경봉독	1 / 2 / 3부	사 41:10
찬 양	2부	호산나 찬양대
	3부	예루살렘 찬양대
설 교	1 / 2 / 3부	변성우 목사 “두려워 말라”
	4부(위성)	이영훈 목사
	4부(청년)	조영태 목사
결신기도	설교자	
헌금기도	1부	이현식 안수집사
	2부	임경린 안수집사
	3부	정복래 안수집사
*광 고	사회자	
*찬 송	주기도문	찬송가 635장
*축 도	설교자	
*찬 양	사랑하는 자여	

금/요/성/령/대/망/회	8월 15일 오후 8시 10분		
설교	대표기도	헌금기도	
변성우 목사	김병환 장로	유정열 안수집사	

예/배/위/원	8월 17일 주일   8월 22일 금요일			
예배	찬양대명	대표기도	헌금기도	
주일 1부	찬양팀	김경채 전도사	김승호 안수집사	
주일 2부	호산나찬양대	김영진 장로	전우청 안수집사	
주일 3부	예루살렘찬양대	김병환 장로	윤재선 집사	
금요성령대망회	찬양팀	문귀순 권사	임경린 안수집사	

## “두려워 말라”(이사야 41장 10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나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요 14:27)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른 영원하고 완전한 평화(shalom)입니다. 예수님은 이 평화를 예수님 안에서 누리라고 하셨습니다(요 16:33).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십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가져오십니다.

### 1. 좋으신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유다의 13번째 왕이었던 히스기야 왕에게 일어난 일은 우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복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소망하게 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며 유다를 개혁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일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충성을 다한 후에 축복이 찾아오지 않고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당시의 최대의 강대국이었던 앗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유다까지 공격해 온 것입니다. 유다에게 앗수르는 감당하기 힘든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히스기야 왕과 이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앗수르의 공격에서 유다를 구원하시고, 앗수르를 멸하셨습니다(대하 32:20~23). 이 승리로 인하여 히스기야 왕은 인근 국가들로부터 조공을 받고 모든 사람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지만 큰 질병에 걸려 죽게 되었습니다. 이 위기에서 히스기야는 즉시로 회개하며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였습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 왕의 병을 고쳐주시고 그의 생명을 15년 연장해주셨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이런 축복을 받은 후, 우쭐해지고 안일해져 바벨론의 사신들에게 보여주지 않아도 되는 것들을 보여주며, 하나님의 진노를 샀고 결국 유다는 바벨론의 손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신실했던 지도자의 이런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회복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소망하라는 말씀입니다.

### 2.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살며 온전한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삶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부지런히 일하고, 이웃을 섬기며 살았는데, 뜻하지 않는 재난이 닥치며, 믿고 의지했던 사람이나 존재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게 되며 실망하며, 이렇게 도저히 감당하기 힘든 일들을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벼랑 끝까지 몰리는 상황에서 우리는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이 다하여 이제 졌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유다 민족이 바벨론에서 귀환하여 예루살렘의 성벽을 다시 건축할 때도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낙심하고 포기하려던 백성들에게 느헤미야는 “두려워하지 말고 주를 기억하라”라고 하며 주가 싸우실 것이라고 격려했습니다(느 4:10~14).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어야 합니다.

### 3. 두려워 말고 하나님께 붙들립시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와 함께하시며, 우리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며, 우리를 굳세게 하시며, 붙들어 주시고,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셔서 절대로 넘어지게 하지 않으십니다(사 40:28~31).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과 함께함을 감사하면, 승리하고 참된 평안과 안식을 얻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도 모두 ‘살림’을 누리게 됩니다. 결국 고난이 우리에게 득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 믿음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 안에 거하며, 평화를 얻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붙들려 살아가는 길은 좋으신 하나님을 소망하고, 믿고, 의지하고, 포기하지 않고 절대 긍정과 절대 감사로 사는 것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소망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르짖고 성령님과 동행하며 그의 위로를 구하면, 우리의 대적은 하나님이 싸워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두려움과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